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목 차

---

## ■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2017년 글로벌 트렌드의 주요 내용 .....	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정 민 연 구 위 원 외(2072-6220, chung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7년 글로벌 트렌드

#### ■ 글로벌 10대 트렌드 선정

2017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① G2 리매치 (G2 Hegemony, rematch)

중국에 부정적 입장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다툼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첫째, 새로운 G2관계를 둘러싼 미·중 간 외교 정책 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對미국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 확대로 안보 불안정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G2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바, 한국은 실리 중심의 균형외교 강화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② 트럼프노믹스 (Trumpnomics)의 시작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며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하는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노믹스의 특징으로는 첫째,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둘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와 금융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셋째,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민자 배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넷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되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③ Return to Asia

브렉시트(Brexit), 트럼프 노믹스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향후 상대적으로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반면, 인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아시아 내 성장 주도권을 이어갈 전망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아시아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화됐으나,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아시아 신흥국 소비시장이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철도, 도로 등 기초 인프라 환경이 선진국보다는 낙후하나, 인터넷 및 무선 전화 사용자 증가뿐 아니라 도시화를 확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지속에 대비하여 포스트 차이나, 소비재 수출 및 인프라 투자 전략 구상뿐 아니라, 우리의 기술,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 진출 노력도 요구된다.

#### ④ Global trade, Back to Normal?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던 세계 교역증가율이 2017년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기 회복으로 신흥국의 교역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경기 회복세 부진, 글로벌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그 동안 부진했던 선진국 및 신흥국의 투자가 개선되면서 자본재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회복 및 중국의 생산자물가 반등,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수출 단가 역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⑤ 넥스트 엑시트 (Next Exit) 위기

EU 탈퇴 문제가 영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EU 체제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추가 탈퇴가 우려된다. 첫째, 2017년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의 선거 이벤트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이민자 문제, IS 테러,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EU 통합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셋째, 반EU, 반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2017년 또다시 EU 탈퇴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 ⑥ Abo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결합하면서 기하급수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혁신과 융합으로 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술력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경쟁구도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진력들이 2017년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 ⑦ Red Chain, Red Wave

2017년에도 중국은 기술경쟁력의 향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국산화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산제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첫째, 중국은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발판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가치사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품수입을 빠르게 줄여나가는 등 중간재의 수입수요도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셋째, 중국산 중간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도 필요하다.

#### ⑧ 4P 의료 패러다임의 전면화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4P(예측: Predictive, 예방: Preventive, 개인맞춤형: Personalized, 참여형: Participatory) 의료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개인 유전체 분석 비용이 하락하고 보건의료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별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 의료서비스가 확산되고, ICT 융합 의료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⑨ Energy 리바운드 (Rebound)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에너지시장의 공급이 안정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OPEC 국가와 러시아 등 산유국의 감산 결정은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가 세계 기후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기후협약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세계 화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정치경제적 이슈 등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⑩ 디지털 트레이드 (Digital Trade)의 시대 도래

인터넷을 활용해 무형의 디지털 화물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트레이드'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첫째, 2017년 세계 데이터 전송량은 500 테라비트를 돌파하고 2005년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글로벌 시장 효율화, 투명화로 사용자 참여 확대를 견인하면서 디지털 트레이드 성장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셋째, 생산자의 거래비용 감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같은 편익은 디지털 트레이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역 장벽 완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 필요하다.

##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정치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G2 리매치(G2 Hegemony, rematch)’가 선정됨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의 시작, ‘Return to Asia’, ‘Global trade, Back to Normal?’, ‘넥스트 엑시트(Next Exit) 위기 등 4개가 선정
  - 산업· 경영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Abo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d Chain, Red Wave’, 기술 부문에서는 ‘4P 의료 패러다임의 전면화’가 선정됨
  - 에너지 · 자원 부문에서 ‘Energy 리바운드(Rebound)’가 트렌드로 선정되었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의 시대 도래’가 트렌드로 선정

### < 2017 글로벌 트렌드 >

분야	주제
정치	1. G2 리매치 (G2 Hegemony, rematch)
경제	2. 트럼프노믹스 (Trumpnomics)의 시작
	3. Return to Asia
	4. Global trade, Back to Normal?
	5. 넥스트 엑시트 (Next Exit) 위기
	6. Abo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및 경영	7. Red Chain, Red Wave
	8. 4P 의료 패러다임의 전면화
기술	9. Energy 리바운드 (Rebound)
에너지·자원	10. 디지털 트레이드 (Digital Trade)의 시대 도래
사회·문화	

## 2.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 ① G2 리매치 (G2 Hegemony, rematch)

○ (의미) 중국에 부정적 입장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다툼이 격화될 우려

- 2017년은 미국과 중국 지도부 모두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인 만큼, 동북아 및 세계 패권 다툼에 있어 미·중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

· 2013년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시진핑 정권의 '대국 굴기'가 격돌하며 미·중간 전략적 경쟁관계가 시작

· 2017년은 중국에 부정적 입장인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의 2기 체제가 가동되면서 G2간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

-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주로 중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인의 일자리 도둑(Job Theft)으로 비난하는 한편, 향후 환율조작국<sup>1)</sup>으로 지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등을 언급

· 또한 중국이 축하전화를 하지 않고 축전<sup>2)</sup>만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미 양국 간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음

○ (내용) 특히 외교, 경제, 군사의 3대 부문에서 미·중간 경쟁 구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외교부문 : 새로운 G2관계를 둘러싼 미·중 간 외교정책 격돌 가능성 고조

· 2012년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對미국 외교 전략에 있어 상호존중·협력공생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sup>3)</sup>를 추구

· 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sup>4)</sup>를 표방하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어,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의 부활 가능성도 존재

1)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내부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후 100일 이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중국은 관례상 국가주석이 다른 나라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음.

3) 시진핑 주석이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 전략으로,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호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임.

4) 미국우선주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으로, 외교분야에서는 고립주의를, 경제분야에서는 보호무역이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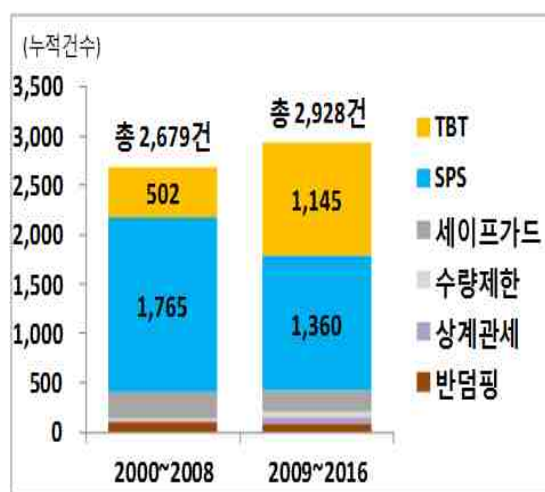


- **경제부문** : 對미국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
    - 미·중 교역 관계를 살펴볼 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기술장벽(TBT) 및 반덤핑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
    - 이와 관련, 미국의 對 중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2,679건에서 2009~2016년 2,928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기술장벽 부문이 크게 증가해 왔음
    - 한편 미국의 TPP<sup>5)</sup> 폐기 가능성에 따라 중국 주도의 RCEP<sup>6)</sup>이 부상할 가능성
  - **군사부문** :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 확대로 안보 불안정성 고조 우려
    - 트럼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혀 미·중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 해법, 한반도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미·중간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미·중 간 외교·경제·군사 질서 급변과 불확실성 증대에 맞춰 한국의 경제 및 정치·군사 전략 재편 필요성 증대
- G2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바, 한국은 실리 중심의 균형외교 강화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

< 2017년 미·중간 주요 경쟁 이슈 >

미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17년 1월 20일 임기 시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17년 10월 19차 당대회 이후 2기 출범	
	외교	- 美 신고립주의 vs. 中 신형대국관계
	경제	- 美·中 간 보호무역 강화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주요 이슈	군사	- 남중국해, 북핵 해법 견해차 - 동아시아지역 정세 악화 우려

< 미국의 對 중국 보호무역 건수 >



자료 : 내외신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 WTO I-TIP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이용화 연구위원(yhlee@hri.co.kr, 2072-6222)

5)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6)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②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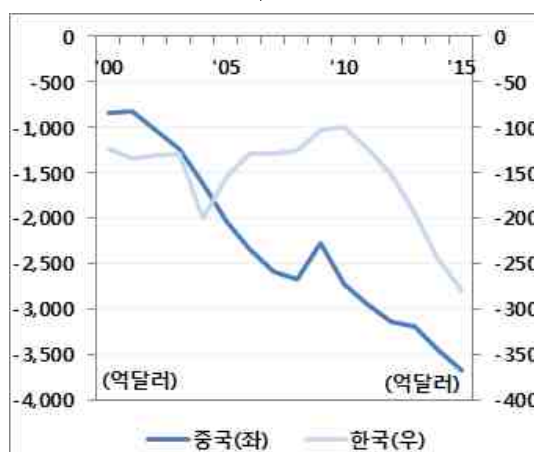
- (의미)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며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하는 트럼프노믹스(가) 시작
  - 2017년 1월 20일 연방의회에서 거행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할 전망
-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인프라투자 활성화 등 총수요 진작책, 대규모 감세, 전통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추진할 전망
  - 인프라 투자 : 트럼프 행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예상
    - 트럼프는 낙후된 도로, 공항, 수로 등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며 재원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세수 확보와 민간자본을 조달할 계획
    - 조세 측면에서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현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최고세율은 39.6%에서 33%로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할 계획
    - 다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국채금리를 높일 가능성

< 미국 역대대통령 정권 시기 >

대선	대통령	정당	평균 성장률
1976	지미卡特	민주당	3.3%
1980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3.2%
1984	로널드 레이건		3.9%
1988	조지 HW부시	공화당	2.3%
1992	빌 클린턴	민주당	3.3%
1996	빌 클린턴		4.5%
2000	조시 W 부시	공화당	2.4%
2004	조시 W부시		1.9%
2008	버락 오바마	민주당	0.9%
2012	버락 오바마		2.2%(’13~’15)
2016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미국의 對중국, 對한국 무역수지 >



자료 : 미국 상무부.

7)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정책을 의미하며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

- **금융정책** :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 규제 완화 추진이 예상
  - 연준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준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할 계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의 폐지를 추진
  
- **에너지 및 이민자**: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민자 배제정책을 추진할 전망
  -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제해온 전통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
  - 반면 미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일 전망
  -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불법 이민자 방지 및 취업비자의 엄격한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
  
- **통상** : 통상정책에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
  - NAFTA, 한미FTA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만약 상대국에서 거부할 경우 협정을 철회할 계획
  - 선거과정에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45% 멕시코는 최대 35%의 보복관세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 행위 WTO에 제소, 재량적 무역구제수단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
  
- (시사점) 트럼프노믹스 추진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점차 증가할 통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
  
- 향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지속적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우량기업 발굴 및 상장 유도, 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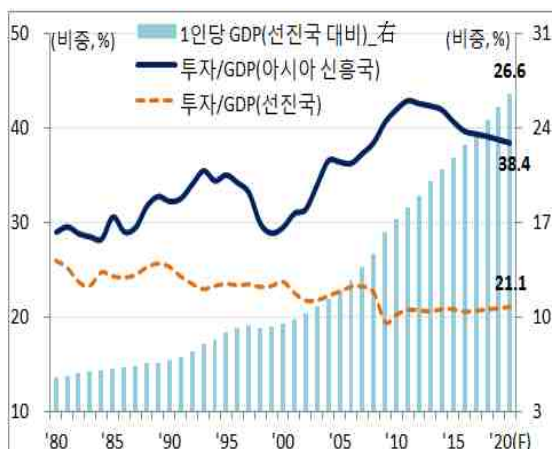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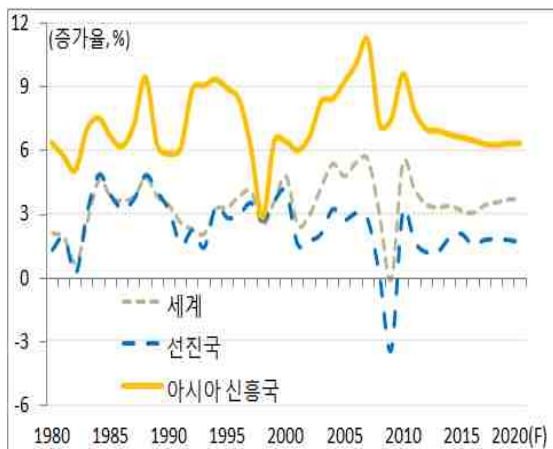
김천구 연구위원(ck1009@hri.co.kr, 2072-6211)

### ③ Return to Asia

- (의미) 브렉시트(Brexit), 트럼프 노믹스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향후 상대적으로 약진이 예상됨
  - 선진국 경제는 향후 2020년까지 3%대 이하의 저성장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IMF(2016.10)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2016~2020년까지 3%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선진국 경제는 동기준 2%대 이하의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
  - 반면, 아시아 신흥국 시장은 중국 경제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인도 등 국가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6%대의 성장이 전망됨
    - 신흥국 아시아 GDP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 진입으로 최근 둔화세가 지속
    - 하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ASEAN) 국가들의 투자확대가 지속되며 6%대의 중·고속 성장이 기대
- (내용) 아시아 신흥국은 아시아 내 주도권 변화, 소비 시장의 재부상, 인프라 투자 수요 급증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잠재력 확충이 예상됨
  - 아시아 내 주도권 변화: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반면, 인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아시아 내 성장 주도권을 이어갈 전망
    - 2000년대 10%대의 고성장을 보였던 중국 경제는 2016~2020년 연평균 6.0%로 감소한 반면, 인도는 동기간 7.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시장의 재부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아시아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화됐으나,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아시아 신흥국 소비시장이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신흥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ppp) 기준으로 2016~2020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하는 등 동기준 선진국 3.6%보다 2배 빠르게 성장 예상
    - 또한, OECD(2010)에 따르면, 전세계 중산층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4%에서 2030년 66%로 확대될 전망
    - 더욱이 세계 중산층 소비 규모 대비 아시아 중산층 소비 규모 비중은 2020년 42%에서 2030년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투자 수요 급증** : 철도, 도로 등 기초 인프라 환경이 선진국보다는 낙후하나, 인터넷 및 무선 전화 사용자 증가뿐 아니라 도시화율 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
  - 아시아 신흥국은 면적과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과 비교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비교적 하위 중등소득 국가들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미비한 양상을 보임
  -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자수(100명당) 등 ICT 관련 인프라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sup>8)</sup>
  - 도시화율도 2015년 현재 중국 55.6%, 인도네시아 53.7%, 태국 50.4%, 말레이시아 74.7% 등 선진국 평균 78.3%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향후 지속 확대가 예상

<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 아시아 신흥국의 1인당 GDP 및 투자 현황 >



자료 : IMF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세계 191개국, 선진국 39개국, 아시아 신흥국 29개국 기준  
 2) 1인당 GDP는 구매력(ppp) 기준.

- (시사점)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지속에 대비하여 포스트 차이나, 소비재 수출 및 인프라 투자 전략 구상뿐 아니라, 우리의 기술,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 진출 노력도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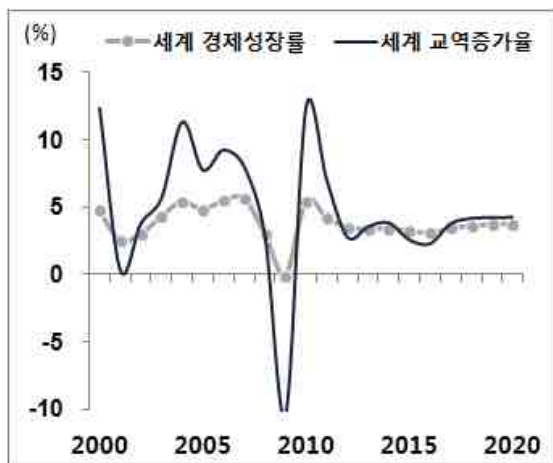
한재진 연구위원(hzz72@hri.co.kr, 2072-6225)

8) 인터넷 사용자수는 2015년 현재, 100명 기준으로 중국 50.3명, 말레이시아 71.1명, 인도 26명, 필리핀, 40.7명, 베트남 52.7명으로 OECD 77.2명보다 못하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수는 동기준 중국 93.2명, 말레이시아 143.9, 베트남 130.6명, 태국 125.8명, 인도네시아 132.3명 등 ICT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

④ Global trade, Back to Normal?

- (의미)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던 세계 교역증가율이 2017년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전망
  - 2000년대 중반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던 세계 교역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며 최근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
    - 세계 교역증가율은 2000~2008년 평균 6.8%로 동기간 4.3%에 불과했던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sup>9)</sup>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증가율은 급락해 2015년 및 2016년에는 각각 2.6%와 2.3%로 세계 경제성장률 3.2%, 3.1%보다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
  - 2017년에는 주요국 경기 회복세로 세계 교역증가율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IMF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교역증가율은 3.8%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4%를 상회할 전망
    - 다만 세계 교역증가율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던 금융위기 이전 상황(Normal)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전망 >



자료 : IMF.  
주 : 2016년 이후는 IMF 전망치.

< 선진국 및 신흥국의 투자증가율 및 교역증가율 전망 >



자료 : IMF.  
주 1) 2016~2017년은 IMF 전망치  
2) 투자증가율은 GDP 대비 투자 비중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9) 기간 중 세계 교역증가율 및 세계 경제성장률의 단순 평균.

- (내용) 2017년 세계 교역은 신흥국 중심의 교역 회복, 자본재 교역 확대, 수출단가 회복세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신흥국 중심의 교역 회복 :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신흥국 중심의 교역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
    - 2017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회복세가 예상되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기 회복으로 신흥국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
    - 신흥국 수입 증가율이 2016년 2.3%에서 2017년 4.1%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신흥국 전체 교역 증가율도 2016년 2.6%에서 2017년 3.9%로 상승할 전망
  - 자본재 교역 확대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특히 자본재 교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15~2016년 세계 경기 회복세 부진, 글로벌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
    - 2017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며 자본재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의 경우 성장 둔화 및 수입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 진행으로 자본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 나타날 전망
  - 수출 단가 회복 : 2017년 세계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전망에 따라 글로벌 수출 단가 역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율이 2%에 근접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 역시 생산자물가가 반등하는 모습
    - 더욱이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수출 단가 역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시사점)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

조규림 선임연구원(jogyurim@hri.co.kr, 2072-6240)



### ⑤ 넥스트 엑시트(Next Exit) 위기

- (의미) EU 탈퇴 문제가 영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EU 체제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추가 탈퇴가 우려
  - 넥스트 엑시트(Next Exit)란 2016년 브렉시트에 이어 EU(유럽연합)를 탈퇴할 다음 국가를 의미
    - 브렉시트(Brexit) 이후 제2의 영국이 등장할지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면서 다음 EU 탈퇴국을 의미하는 단어로 '넥스트 엑시트'를 사용
  - 브렉시트 이후 프렉시트, 그렉시트, 넥시트 등 다양한 관련 합성어가 등장하면서 EU 탈퇴 문제가 영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
    - 프렉시트(Frexit, 프랑스의 EU탈퇴)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EU탈퇴), 넥시트(Nexit, 네덜란드의 EU탈퇴), 오엑시트(Oexit, 오스트리아의 EU탈퇴) 등 각 나라의 이름에 탈출·탈퇴(Exit)를 합친 다양한 합성어가 등장
- (내용)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EU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퓰리즘<sup>10)</sup> 정당이 부상하면서 EU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
  - 2017년 유럽 선거 일정 : 2017년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의 선거 이벤트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
    - 이탈리아는 2016년 12월 4일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결에 책임을 지고 렌치 총리가 사임하면서 2017년 상반기 조기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며, 총선에서 반EU·반유로화의 오성운동(M5S)이 집권할 경우 EU 탈퇴 리스크 발생
    - 네덜란드는 2017년 3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극우파 자유당(PVV)의 빌데르스 후보가 EU 탈퇴 찬반 국민투표를 주장
    - 프랑스는 2017년 4월 대선에서 공화당과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전선 마린 르펜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프렉시트(Frexit) 찬반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
    - 독일은 안스바흐 자살폭탄 테러, 뮌헨 쇼핑몰 테러 등 난민 테러 발생, 반EU·반이슬람의 대안당 지방의회 선거 약진 등으로 인해 2017년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의 4선 연임 실패 시 독일의 EU 내 리더십이 약화될 전망

10) 포퓰리즘(Populism)이란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하며, 정책 현실성,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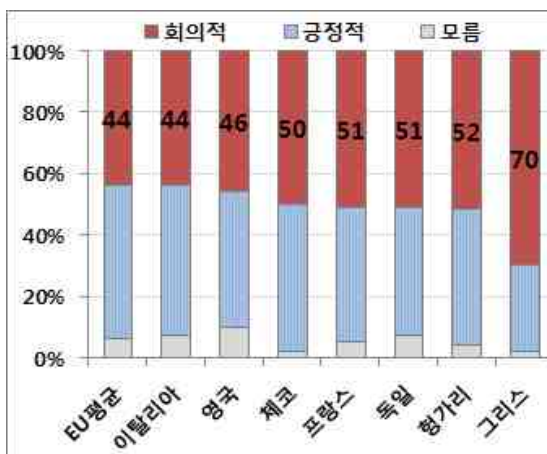
- EU미래에 대한 회의론 확산 : 이민자 문제, IS 테러,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EU 통합이 악화될 전망
  - 유럽연합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에 의하면,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1년 전에 비해 8%p 상승
  - 국가별로는 그리스 70%, 독일 51%, 프랑스 51%, 영국 46% 등이 EU 평균보다 EU체제 미래에 더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
  - EU가 직면한 2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48%가 이민, 39%가 테러라고 응답해 이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유럽 내 포퓰리즘 정당 부상 : 반EU, 반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2017년 또다시 EU 탈퇴론이 부상할 전망
  -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
  - 이에 따라 그리스와 영국에서 시작된 EU 체제에 대한 반발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재현될 가능성

< EU체제의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 >



자료 : Eurobarometer.  
주 : 2016년 3월 조사 기준.

< EU체제의 미래에 대한 국가별 설문조사 >



자료 : Eurobarometer.  
주 : 2016년 3월 조사 기준.

- (시사점)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화 조치가 요구

백다미 선임연구원(dm100@hri.co.kr, 2072-6239)

## ⑥ Abo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의미)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전망
  - 2017년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의 상용화와 융합화가 빠르게 진화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것임
    - 획기적인 기술 진보,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 재편,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경제, 산업,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특히, 융합을 통한 기술혁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도 더욱 가속화가 될 전망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
    - 저성장시대, 생산성 둔화, 신성장 동력 부재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추진 정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 (내용) 기술의 결합, 제조업의 진화, 디지털 기반 기업 확산 등이 '4차 산업혁명' 본격화의 주요 추진력으로 작용할 전망
  - 결합의 효과 :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결합하면서 기하급수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무어의 법칙<sup>11)</sup>(Moore's Law)을 대변하듯이 IoT(사물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기술 결합으로 지수적 성장을 달성하면서 기술적 역량이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임<sup>12)</sup>
  - 제조업의 진화 : 기술 혁신과 제조업이 융합되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11) 무어의 법칙(Moore's Law) :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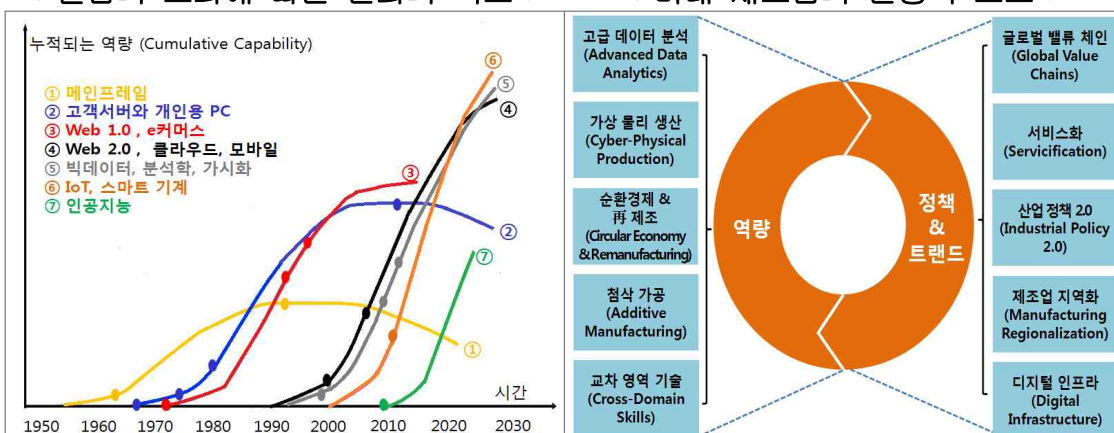
12) 2007년에 \$100,000에 구입할 수 있던 드론이 2015년에 \$500에 구입이 가능해짐.

- 기술 혁명을 통한 비용 감소, 순환 경제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교차 영역 기술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 등이 제조업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킴
- 서비스화와 접목, 제조업 지형도 및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 등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모색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

- **디지털 기반 기업의 확산** : 기술력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경쟁구도는 심화될 것임
  - 최근 신생 기업들은 불과 몇 년 안에 시가 총액 10억 달러를 달성<sup>13)</sup>하는 등 디지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 될 전망
  - 또한 자동차, 기계 산업 등에서의 ICT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기존의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등 이중업계 간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결합의 효과에 따른 변화의 속도 >

< 미래 제조업의 원동력 요소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Jan, 2016.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Manufacturing Our Future*, May, 2016.

-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
- 특히, '선택과 집중' 통해 투자 효율성 높이고, 투자주체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차별된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산업 육성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강화

정 민 연구위원(chungm@hri.co.kr, 2072-6220)

13) 액센츄어(Accenture)와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포춘 500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렸지만, 최근 설립된 기업 중 구글 8.1년, 페이스북 6.2년, 테슬라 5.1년, 우버 4.3년, 에어비앤비 2.8년, 샤오미 1.7년이 소요되었다고 발표.

## ⑦ Red Chain, Red Wave

- (의미) 중국은 기술경쟁력의 향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국산화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산 제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Red Chain은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것, Red Wave는 2017년에도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
  - 중국의 제조기술 향상에 따라 자국산 부품이 수입산을 대체하고,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대되는 추세
    - 최근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을 뜻하는 '레드 서플라이체인 (Red Supply Chain)<sup>14)</sup>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
    - 2017년부터는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성과에 따라 중국의 Red Chain, Red Wave의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내용) 2017년에도 중국은 부품 국산화 등 부가가치 업그레이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국산 제품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고부가가치화 확장** : 중국은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발판으로 삼아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가치사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국가임
    - 특히, 중국의 제조업 조립·가공 역할이 약화되면서 중간재 수입 중에서 수출에 다시 사용되는 비중은 내년에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노력을 강구하면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 : 또한 부품수입을 빠르게 줄여나가는 등 중간재의 수입수요도 지속 감소할 전망
    - 통관무역액 기준으로, 2015년 중국의 對세계 부품 수입총액은 2014년 대비 3.0% 감소한 5,80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부품 수입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14) 홍색공급망은 지난 2013년 10월 대만의 주요경제 매거진 '천하잡지(天下雜誌) 제534권'에서 '紅色供應鏈風暴, 台灣如何迎戰'이라는 문장에서 처음 언급.

- 자국산 생산 확대 : 반면, 중국산 중간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는 빠르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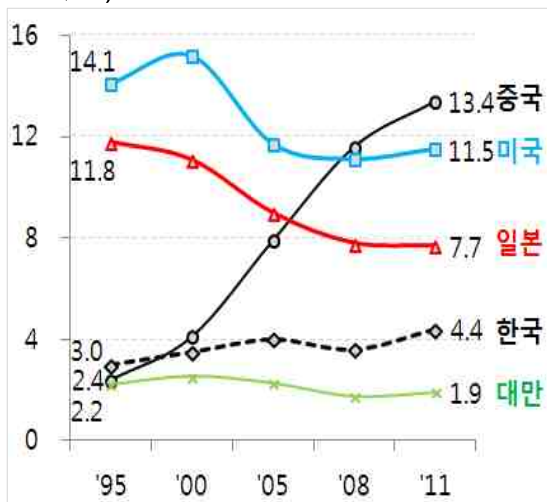
- 2010년 이후로 중국은 강력한 가공무역 억제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세계 제조업부문의 최종수요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중국은 2008년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글로벌 최대 창출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이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 중국의 부품 수입 추이 >  
(억 달러) (증가율, %)



자료 : 소재부품종합정보망.

< 주요국 對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비중 >  
(비중, %)



자료 : OECD-Tiva(2015) 자료로 HRI 재구성.

○ (시사점)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도 필요

- 한·중 FTA, RCEP, TPP 등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공동 R&D 연구 플랫폼 마련, 우수 연구인력 교류 확대 등 역내 협력 채널 개설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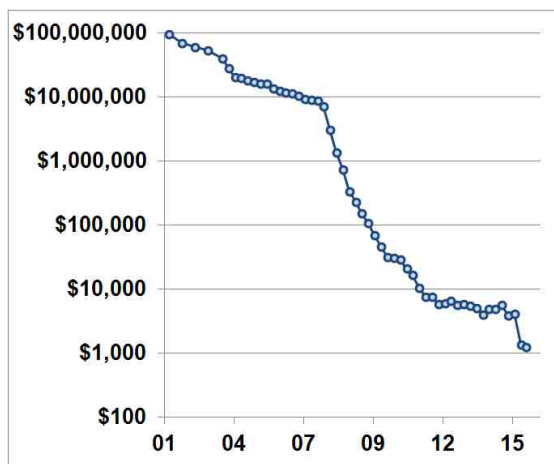
- 중국이 제품 생산의 국산화 양상이 빠르게 전진되는 만큼, 주요 산업 및 차세대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해 원천기술, 상용화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략적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이 시급

천용찬 선임연구원 (junius73@hri.co.kr, 2072-6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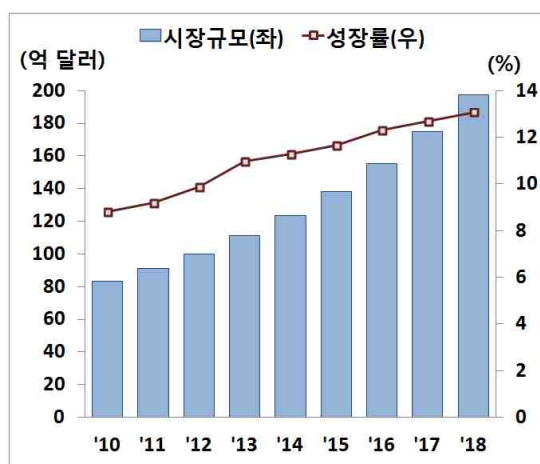
⑧ 4P 의료 패러다임의 전면화

- (의미)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4P 의료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
  - 4P 의료란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개인맞춤형(Personalized), 참여형(Participatory) 의료 패러다임을 의미
  - 2015년 미국의 정밀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발표 이후 정밀 의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4P 의료서비스가 빠르게 현실화
    - 정밀의료란 “사람들의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적 접근법”으로 정의<sup>15)</sup>
- (내용) 빅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핵심기능이 ‘사후적 질병치료’에서 ‘예방적 개인맞춤형 건강향상’으로 중심이동
  - 유전체 분석 시장 확대 : 1명의 유전체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1년 1억 달러에서 2016년 1천달러로 하락함에 따라 유전체 분석 시장이 빠르게 성장
    - 세계 유전체 분석 시장규모는 2010년 83억 달러에서 2018년 198억 달러로 성장할 연평균 11% 이상의 고속 성장이 지속될 전망

< 개인 유전체 분석 소요비용 추이 >



< 세계 유전체 분석 시장규모 전망 >



자료 :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자료 : Market and Markets(2013).

15)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5), The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Infographic, USA.



- **보건의료 정보교류 활성화**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개인 건강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확산
  - 의료기관, 홈 헬스케어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앱 등에서 수집된 의료정보를 통합·저장·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증가
  - (의료정보 플랫폼) 보건소, 병원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해왔던 의료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활성화
  - (건강정보 플랫폼) 개인별 신체, 활동 데이터의 측정 및 공유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경쟁 가속화
  
- **빅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 의료서비스 확산** : 개인 유전자 정보, 생활습관, 생체정보 등 의료·건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형 의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
  - IBM의 왓슨, 구글의 베릴리 등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진단, 검사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 특히, IBM은 왓슨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의료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의사, 연구원, 의료보험회사, 의료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개인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ICT 융합 의료기술 개발 가속화** : 의료 서비스에 ICT 기술을 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전개
  - (하드웨어) 신체에 부착 및 결합을 통해 건강관리를 보조하고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기기의 활용이 증가
  - 아직까지는 안경, 시계, 밴드 등 휴대형 기기가 대부분이나, 점차 디지털 패치 등 신체 부착형 또는 센서·칩 등 생체 이식형으로 진화 예상
  - (소프트웨어) 진단기기, 센서 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
  - 애플(Healthkit), 구글(Google Fit), 삼성(SAMI) 등 주요 ICT 기업들은 자신의 데이터 엔진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 (시사점)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 ⑨ 에너지 리바운드(Energy rebound)

- (의미)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에너지시장의 수급이 안정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세계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등 에너지수급에 관한 이슈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 당선인의 기후협약 반대 공약 등 정치경제적 이슈가 혼재할 것으로 전망됨
  - 종합적으로는 세계 에너지의 과잉공급이 조정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내용) 세계 경제 회복세,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의 감산 이행, 세계 기후협약 붕괴 우려 등이 세계 에너지 가격 반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 회복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 IMF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2년 3.5%에서 2016년 3.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2017년에서 3.4%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17년에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4.6%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됨
  - OPEC의 감산 이행: OPEC 국가와 러시아 등 산유국의 감산 결정은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OPEC은 2017년 1월부터 하루 석유생산량을 120만 배럴 감산한 3,250만 배럴로 합의하였고, 비(非)OPEC 국가 중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러시아도 감산에 동참 예정임
    - 2017년 세계 유가가 50~60달러 수준이 되면 미국 등에서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산유국의 감산 결정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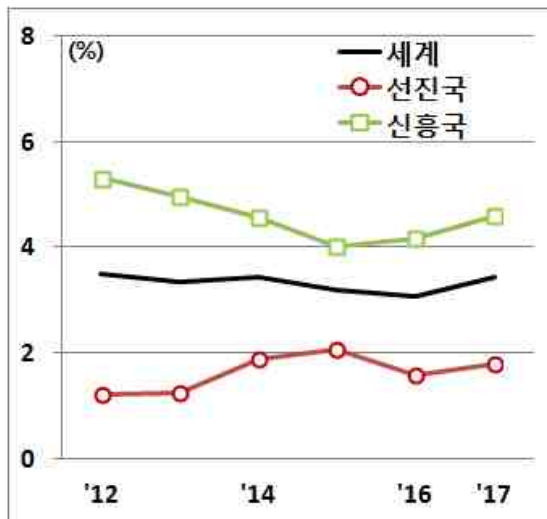
- 세계 기후협약 시스템 붕괴 우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는 세계 기후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세계 기후협약의 시스템 붕괴 가능성 존재
  - 세계에서 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기후협약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에너지의 개발을 지지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 자원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기후협약의 정체는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자원 가격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주 1) 2010년 1월을 100으로 표준화함  
 2) 원유는 WTI 기준  
 3) 천연가스는 NYMEX 선물가격 기준.

< 세계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 (시사점) 2017년 정치경제적 이슈 등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이 절실

오준범 연구원(jboh19@hri.co.kr, 2072-6247)

## ⑩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의 시대 도래

- (의미) 인터넷을 활용해 무형의 디지털 화물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트레이드'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
  - 유무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제적 거래 형태를 의미하는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
    - 3D 프린팅을 위한 설계도 주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입, 넷플릭스의 드라마 다운로드, 해외 유명 대학의 동영상 강의 수강 등이 디지털 트레이드의 사례
- (내용) 세계 데이터 전송량 급증,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거래비용 감소 및 제품 선택권 확대 등은 디지털 트레이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세계 데이터 전송량 급증 : 2017년 세계 데이터 전송량은 500 테라비트를 돌파하고 2005년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할 전망
    - 2005년 세계 데이터 전송량은 초당 4.7 테라비트(Tbps)<sup>16)</sup>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초당 211.3테라비트로 10년간 약 45배 증가
    -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 산하 연구소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MGI)는 2017년 세계 데이터 전송량이 2005년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하며 500 테라비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sup>17)</sup>
    - MGI는 세계 데이터 전송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1년 2000 테라비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 디지털 플랫폼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시장과 사용자 참여를 견인하면서 디지털 트레이드 성장으로 연결될 전망
    - 디지털 플랫폼은 아마존(Amazon)과 같은 전자상거래, 안드로이드(Android)와 같은 운영체제,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YouTube)와 같은 디지털미디어플랫폼 등을 포괄
    -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시장 구조를 넘어 지리적 제약 없이 상권을 형성할 수 있어 소기업 및 개인의 성장 발판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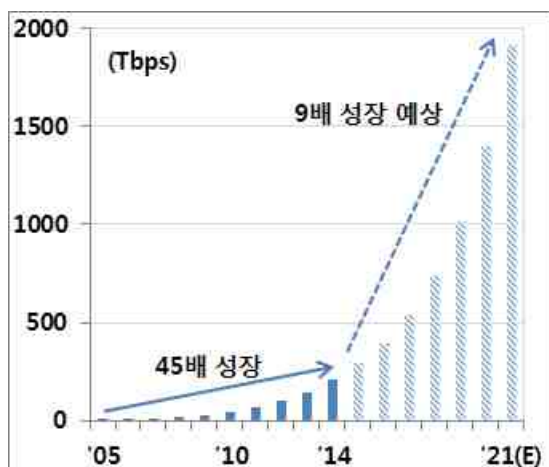
16) 데이터 전송속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1테라비트는 1조 비트(bit)의 데이터 처리량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17) McKinsey Global Institute,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2016.03.

- 온라인 사용자는 제품 및 서비스 후기 작성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경을 넘는 거래의 확산을 견인할 전망
- 이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는 지금까지 등장한 적 없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시장과 사용자 커뮤니티의 탄생을 견인할 것이며, 이는 디지털 트레이드의 성장으로 연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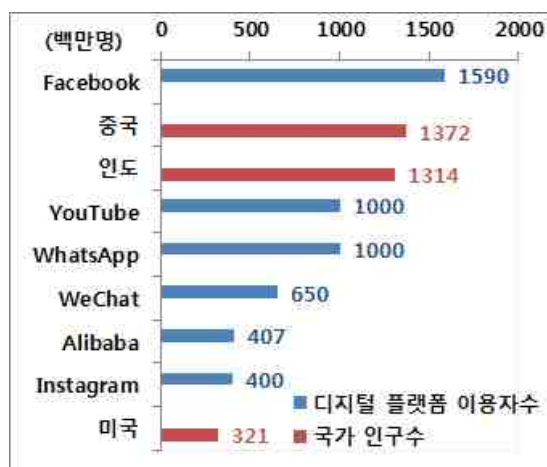
- **거래비용 감소와 제품 선택권 확대** : 생산자의 거래비용 감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같은 편익은 디지털 트레이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생산자에게는 기존 무역 대비 거래·유통 비용 감소, 로지스틱스 관리 효율화, 생산성 강화 등의 편익이 기대되며, 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시장에 접근이 가능
  - 소비자에게도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이 기대되고 있어 디지털 기반의 무역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세계 데이터 전송량 >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수와 국가 인구수 비교 >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주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수는 '15.4Q 기준  
 국가 인구수는 2015년 기준.

- (시사점)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역 장벽 완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 필요

백다미 선임연구원(dm100@hri.co.kr, 2072-6239)